

불교심지순례 전문

헤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한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 733-3900



○선암사 해우소는 규모나 구조면에서 해우소의 전형성을 이루고 있다 할 정도로 이름나 있다.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하단부 한쪽이 고스란히 돌린 출입구와 발의 높이가 같아 잘 숙성된 인분퇴비를 배추 밭 등에 뿌리기 쉽게 되어 있다. 너무 낮아 훼손을 막기 위해 지붕에 양철판을 씌워 주고 있다.

◀토종 해우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송광사 팔일암 해우소 하단부 아래부분은 기와흙벽으로, 윗부분은 나무 창틀로 했다. 한 스님이 거름을 채비할 때를 찍고 있다. (사진제공=홍석화)

해우소

“자연 벗삼아 근심 비우는 곳”

‘비우도 또 비우나 큰 기쁨 있네
달 진 지 삼독도 이같이 버려
한 순간의 허물도 없게 하리라
을 하모다야 사바하’

절집 뒷간에 가면 볼 수 있는 ‘입속진언(入厨眞言)’이다. 버림과 비움,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잘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말로야 할 수 있지만 어디 인간이 일단 한 번 옮겨주었다면 버리기가 그리 쉬운가. 그러나 이를 매일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화장실이다. 사람들은 매일 버림으로써 비움의 시인함을 느낀다. 아깝고 아깝기 보다는 오히려 쾌감과 안정을 얻는다. 버리고 비우면서 도리어 시원함과 안정을 얻는 이 이치를 곱곰히 헤아려보면 어떨까.

냄새나고 더러운 것의 대명사, 풍과 오줌을 버리기 위해 매일 가야 하는 화장실. 그곳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면서도 지저분하고 깨끗하게 여겨져 왔다. 이쯤까지도 뒷간→변소→화장실로 변했다. 요사이의 서양식으로 토일렛, W·C 등으로까지 부른다.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뒷간이 인분이 되는가.

불가에서는 뒷간을 더없이 적절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해우소(解憂所)’, ‘근심을 해결하는 곳’, 만일 변비가 며칠만 계속된 사람이라면 해우소가 얼마나 적절한 이름인지를 단박에 깨달을 수 있으리라.

산속의 고찰이 관광과 유람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되어버린 요즘, 쏟아져 나온 답사기 덕분에 절에 가면 법당, 탑, 불상, 단청, 심지어는 문살과 스랫돌까지 유심히 살펴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절마의 진짜배기 고유 문화재가 사람들의 버려진 눈길속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전통 해우소.

이제는 산속 고찰이라도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또 사찰의 대대적인 중창공사로 인해 재래식 해우소를 허물어버려 전통 해우소 찾기가 불사 안한 절 찾기 보다 더 힘들게 됐다. 그러나 남아있는 곳이 순천 송광사, 문경 김용사, 순천 선암사, 흥천 수타사, 삼척 영은사, 오대산 중대 사자암, 영월 보덕사, 청량사 등.

밀바다를 시멘트로 처리하고 하단부의 벽을 회벽으로 보수하는 등 전통적인 모습을 일부 잃고 있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송광사, 선암사의 해우소는 규모나 건축면에서 평범을 이룰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우소이다.

밭공양이 음식쓰레기를 전혀 남기지 않는 이상적인 불가의 식(食)문화라면 전통 해우소는 인간의 배설물을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이상적인 하수처리장이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불이(不二)사상, 이세상의 모든 것은 돌고 돌며, 서로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는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진리를 해우소만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인간이 음식을 먹고 배설한 배설물은 나뭇, 왕겨 등과 함께 썩어 썩어 귀한 유기질비료가 된다. 이 비료가 땅에 뿌려지면 온갖 곡식과 채소를 키우는 귀한 거름이 되는 것이다. 화학비료의 폐해가 점점 심해지고 썩지 않는 일회용 물건들이 지구 전체의 골칫거리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

는 요즘 발우공양과 함께 해우소도 되살려 본받아야 하는 훌륭한 절집문화라는 것이 해우소의 진가를 발견한 이들의 주장이다.

해우소는 자연으로부터 나온 음식물을 먹고 배설된 인분을 자연스레 저 대지에 되돌리는 자연순환의 연결고리를 고려해 지어진 건물이다. 해우소는 양쪽 측면에 거리를 두어 물담을 쌓아 공간을 만들고 본건물을 지었다. 공기와 소음을 고려해 냄새도 빠지고 잘 썩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배설물이 모이는 해우소의 하단부 벽은 통나무나 기와장을 이용 통풍구처럼 세우고 밀바닥은 흙으로 해 인분이 자연스레 흙과 어우러지게 했다. 또 사찰 주위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낙엽이나 나뭇재 등을 수북히 쌓아놓아 인분위에 덮어 준다. 낙엽, 재, 왕겨 등과 섞이면 인분은 자연발효되어 음식이 되고 여기에 채와 석회를 뿌리면 발효가 촉진되고 냄새가 없어져 훌륭한 거름이 된다. 이것은 논 밭이나 과수원 그 어느곳에 뿌려도 땅에 흡수되어 곡식이나 야채를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는 것이다. 토양을 좋게 하는 이러한 거름이 뿌려진 흙에서 자란 곡식이나 채소는 잘 여물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어 상위에 올라온다. 대부분의 전통 해우소들은 아래부분에 거름을 큰 출입문을 내놓아 잘 썩은 거름을 막바로 채소밭으로 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우소는 앉으면 딱 옆 사람이 보이지 않을 위치까지 나무간막이가 되어 있다. 사방이 완전히 막힌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는 근혹스럽겠지만 사실 불일보는 일이 그렇게 공공 숨겨야 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제는 회전문화재가 되어 가는 해우소. 가끔때는 쓰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놓고,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한 수세식 화장실을 짓기도다 환경친화적이고 고효율의 모습과도 잘 어울리는 전통 해우소를 살려

야 한다.

사찰을 소개하는 책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절집 해우소. 그 진가를 발견해 ‘이 사회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 불교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어느 날 한 운수남자가 조주스님을 찾아와, “스님,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저의 간절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라며 “급하고 절박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다.

“오줌 누고 통 누는 일이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이 노승이 스스로 누어야 한다는 것이네.”

내가 배고르면 내가 먹어야 배부르다. 내가 추우면 내몸에 옷을 입어야 따뜻하다. 내가 졸이 마려우면 내가 누어야 한다. 조주스님은 “내 통은 내가 누어야지”라는 일상의 비유로 우리를 일깨운다.

매일 매일 해우소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 해우소에 갈 때마다 “제 통은 내가 누어야지”라는 화두를 들어봄이 어떨까.



○해우소는 양쪽 측면에 물담을 쌓고 1m 정도의 거리를 두어 본건물을 지었으며 해우소 하단부는 통풍이 잘되게 나무창틀로 만들었다.



○해우소 내부. 열린 공간이 불가의 탁 트여진 세계를 보여주는듯 하다.



○해우소 기본구조.

“전통 해우소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뒷간연구가를 자처하는 홍석화씨(49·한국토종연구회 부회장)는 전통 해우소를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다 사라지고 만다며 정부에서 무관심하다면 불교계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해우소 조사와 보존에 나서주기를 요구했다. 그가 전통 해우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다니는 것은 2년전부터. (한국의 토종 101가지) (한국의 토종기행) (토종문화와 모듬살이) 등 3권의 책을 내고 토종문화관련 강연을 다니는 홍씨가 전국 수백 곳의 절집과 농가의 뒷간을 발로 뛰어 찾아낸 결과 전통 해우소야말로 토종문화화에서도 ‘진짜 알맹이’란 것을 발견했다. 울진 불영사와 같이 최근 다시 가보았을 때 이미 사라졌거나, 흔하게 고친다며 콘크리트로 보수해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해우소를 보았을 때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과학적인 용변처리시스템인 해우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보수를 하더라도 하단부 기본 골격이 변형

“과학적 용변처리 구조”

문화재로 지정... “공공화장실부터 고치자”



되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다.

그는 환경문제의 핵심이 ‘백’과 ‘똥’이라고 단언한다. ‘백’ 문제가 엄청나고 미묘해 일반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나 ‘똥’ 문제만은 같이 고민하면 해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음식쓰레기, 산업쓰레기, 농축산물쓰레기, 하수처리 등이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주먹만큼 쌀 통에 물 한말 타서 흘러보내는’ 수세식 변소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맛있는 뭇떡여찌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뒷간이 뭐?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강물이 엉망이 되는데요”라고 소리를 높이는 그는 도시의 하수처리시스템을 종말처리해 맞추지 말고 근원부터 발생전환을 하고자 제안한다. 공학자들이 전통 발효식 인분처리의 최후산물이 농작물에 이렇게 쓰임을 증명하고 경제계에서 지역별 소규모 다단계 종합정화조를 설치해 강물 오염을 막고 정치자들은 시골 농민들 집에 정화조 물이라는 밥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석화씨는 대도시의 수세식 하수처리시스템을 전면 뜯어고친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므로 절집 해우소의 구조와 원리를 이용해 국립공원의 공공화장실부터 멋있게 짓자고 제안한다.

“아니, 환경을 보호하지는 환경단체연수원의 수세식 화장실부터 고쳐야 합니다. 뒷간을 잃어버리고부터 우리는 우리 목숨의 순환고리를 잃어버린거나 마찬가지가 됐으니 이 순환고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불교계가 먼저 발벗고 나섰으면 합니다.” 홍석화씨는 그동안의 답사결과를 모아 내년 봄쯤 해우소에 관한 책을 펴 낼 예정이다.

※재래식 해우소를 갖고 있는 절에서는 홍석화씨에게 꼭 연락(011-730-8371)해 주세요.